

<2018년 12월 2일 주일말씀>

온전하게 행하라

본 문 시편 18편 25-27절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잠언 20장 7절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1. 온전히 행하여라. 이 안에 그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다.
2. 지금까지 가르쳐 준 말씀들을 온전하게 행하여라. <완전함>은 곧 ‘안전’이다.
3. 우리 육신과 영혼이 가장 ‘안전하게’ 존재하려면, <완전>해야

된다.

4. 완전하게 행할 때 <생명의 역사>도 일어나고, <생명 보호의 역사>도 일어나고, 혹은 <자기 육>도, <영>도 아름답게 만들게 되기도 하고, 이 조건으로 ‘축복’도 받게 된다.
5. (하나님) 축복을 받고 싶으냐? 그러면 완전하게 행하여라.
6. <완전하게 하는 자>나 <못 하는 자>나, <수고함>에는 별 차이가 없다.
7. 가령 <100미터를 완주하는 경기>가 있다 하자. 고로 <100미터>를 다 가면, 그 사람은 ‘완전한 자’다. 그런데 <98미터>까지만 가면, 그 사람은 ‘불완전한 자’다.
8. 98미터까지는 ‘1등’ 이었다고 해도 나머지 2미터를 가지 않으면 절대 어떤 메달도 딸 수 없다. <완전>과 <불완전>이 이렇게도 큰 차이가 있다. 그동안 <98미터>를 전속력으로 달려온 사람이 <나머지 2미터>를 더 간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수고스럽고, 힘들고, 몸부림쳐야 되는 일은 아니다. <98미터>까지 갔다면, <100미터>까지 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기술도 있고 힘도 있다.
9. <휴거를 이룬 자들>은 ‘98미터’ 까지 온 것과 같다. <100미터>까지 더 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기술이 있고, 하나님도 성령님도 주도 있다.

10. 조금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인생 실패의 원인이다.
11. <항상 100미터까지 계속 가는 사람>은 <뇌>에서 ‘100미터’를 다 갈 때까지 시동이 걸린다. 그런데 <98%까지만 하고 마는 사람>은 항상 ‘98%’에서 시동이 꺼져 버린다. 조금만 더 하면 할 수 있는데, 계속 그 한계선을 넘지 못한 상태에서 뇌에서 시동이 꺼진다. 그러니 100%를 할 수가 없다.
12. 본인이 ‘자기가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몰라서 2%를 남겨 놓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13. 먼저는 생각에서 <완전하게 해지는 것>과 <완전하게 해지지 않는 것>이 결정된다.
14. <성공의 비법>은 <실행 능력, 실천력>이다.
15. <실천력>을 키우는 방법은 ‘반복’이다.
16. 자꾸 해 버릇하라. 좋은 습관을 들여라.
17. <완전하게 행하는 자>와 <못 하는 자>의 차이는 ‘머리, 생각, 지능’에서 결정된다.
18.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98%에서 자꾸 시동이 꺼지는 것>은

‘행함’으로 완전하게 고쳐야 된다.

19. <100%까지 행함>으로 고치기다.

20. <회개>도 100% 해야 된다. 100% 깨끗하게 회개할 때 ‘완전함’에 들어오게 된다.

21. 완전하게 행해 버릇해라. 습관을 아예 들여 버려라.

22. <생각이 살아 있는 자, 생각이 완벽하게 부활된 자>는 100% 한다. 기어코 시동이 걸려서 ‘100%’까지 하게 된다.

23. <완전하게 부활되지 못한 자>는 100%를 하지 못하고 항상 ‘98%, 97%’에서 시동이 꺼져 버린다.

24. 누구든지 조금만 더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다.

2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삼위는 <절대적>으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존재자이시다. <절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완전하다는 말’이다.

26. <절대자>는 ‘항상 완전하게 하는 자’다. 100% 완벽하게 행하시니 절대자이시다.

27.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적으로 행하신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체이니, 하나님같이 완전하여

라. 완전히 행하여라.

28. <금이 간 그릇>에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는다. <완전하지 못한 자의 행위>가 이러하다.

29. <회개>도 호리라도 남기지 않고 100% 완전히 하는 것에 도전하고, <기도>도 호리라도 남기지 않고 100%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30.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탄은 틈을 노린다.

31. <사탄>은 사람을 휘어잡고, 막고, 권세를 부리면서 자기 것으로 삼는다. 어떻게? <틈새>를 노린다.

32. <사탄>은 ‘틈’을 노린다. 고로 <완전하지 못한 틈>을 노리고, 이것으로 힐문하고, 쥐고 흔들고, 권세를 부린다.

33. <사탄을 완전하게 이기는 방법>은 ‘주와 완벽하게 하나 되는 것’이다.

34.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된다. <주>와 하나 됨에 있어 틈을 주지 말고, 주를 사랑함에 있어 틈을 주지 않는 것이다.

35. <행하는 것>이 ‘답’이다.

36. 하면, 그리도 기쁘고 좋다.

37. 시편 18편 25절을 보면,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 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 온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을 보이신다.” 했다. 〈하나님의 완전함〉은 우리가 완전하게 행하지 않고서는 볼 수 없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해야 〈주의 완전하심〉을 볼 수 있다.
38. 〈완전하게 행하는 자〉는 인간으로서 ‘신’이 돼서 한다.
39. 완전하게 행하니,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고 상상도 못 하는 일이 일어난다.
40. 완벽하게 행하면, 누구든지 기적이 일어난다.
41.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자요〉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 되어 할 수 있다. 행하기만 하면 된다.
42. 하나님은 ‘실천하는 자’를 그렇게도 좋아하신다.
43. 〈실천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무조건 ‘승리한 자’가 된다.
44. 완전하게 행하되, ‘자비’를 갖추야 된다.
45. 〈자비〉란, ‘너그러움, 불쌍히 여김, 남을 생각해 주는 것, 희생하면서 살피는 것’이다.

46. <자비>의 반대말은 ‘잔인함’이다. <자비로움이 없는 자>를 ‘잔인한 자’라고 했다.
47. 선생은 <시대 역사>를 펴 오면서 셀 수 없이 자비를 베풀면서 왔다. 민족을 생각할 때, 무지한 시대를 볼 때 화가 나고 속이 뒤집어졌어도 역시 또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면서 왔다.
48. 하나님도 성자도 늘 말씀하시기를, “공홀을 베풀어라. 공홀이 없으면 심판받는다.” 하셨다.
49. <자비를 베푸는 것>도 근본은 ‘땅에 보낸 메시아’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사람들을 보면, 자기가 자비를 베푼다고 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육적인 세계’에 불과하다.
50.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베푼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비를 베푸신다.
51. 형제들에게 잔인하게 말하고, 욕하는 자들은 회개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에게는 ‘천국 문’이 안 열린다.
52. <천국 문의 열쇠>는 ‘자기’다. <자기 행위>가 ‘열쇠’가 되어 천국 문이 열린다. 고로 자기가 완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인해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53. 자기 행위에서 ‘자비’가 빠지면 안 된다.

54. <시대 신부들>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권세가 높다.
55. <생명을 살리는 일>, <십자가를 대신 져 주는 일>이 곧 ‘자비’요, ‘공휼’ 이요, ‘덕을 쌓는 일’ 이다.
56.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함’ 을 보이신다. 그러나 자기가 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완전함>을 볼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 주가 하시는 일을 의심한다.
57. 본인이 완전하게 행해야 그때서야 ‘완전하게 행하는 것’ 이 보인다.
58. <완전하게 행하는 것>은 실상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다. <하나님이 신부들>에게 시키시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다. 그러니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59. <완벽하게 행하는 습관>을 들이고, 하나님께 완전히 하겠다고 결심하고 해야 된다.
60. <결심하고 완벽하게 행한 자>는 ‘영웅’ 이요, ‘신’ 이다.
61. <섭리사의 교리>는 ‘사랑’ 이고, 또 하나는 ‘실천’ 이다.
62. 완전하게 행하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꼭 ‘실천’ 해야 된다. 그리고 ‘완전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를 깨달아야 된

다.

63. 완전하게 행하면, 100%가 된다.

64. <하나님의 인봉된 말씀>도 ‘완전하게 행함’으로 풀다. <행한 자>가 푸는 것이다.

65.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행하여라. 무조건 충성하고 참고 견디고 행하여라. <행한 것>만이 남아진다.

66. <성공의 비법>은 ‘정신계’에 있고, 또 하나는 ‘실천계’에 있다. 행하면, 자기가 행하여 만든 대로 그대로 되어 있다.

67. <시대 보낸 자>는 절대적으로 행했다. 고로 <6000년 구원역사의 비밀>을 풀고, <성경에 인봉된 구원과 휴거의 비밀>에 대해서 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알게 됐다. 고로 <사랑>이 핵심인 것을 알고 행하여 결국 ‘하나님의 창조 목적의 뜻’을 휴거로 이뤘다.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성경의 인봉을 풀고, 하나님의 최고의 뜻을 이룬 것이다.

68. 모두 완전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야 100%가 된다.

69.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함’을 보이신다.

70. 깨끗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100% 회개해야 된다.

71. 자기가 죄를 100% 회개하면, 꿈에 ‘깨끗한 것’이 보인다.
그리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로 인해 계속해서 자기가 할
일들이 보인다.
72. <깨끗하게 만드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된다.
73. <천국에 가는 것>도 ‘자기’가 해야 된다.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행함으로 완벽하게 만들고,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며 구
원시키고, 100% 회개함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74. 무조건 자기가 행하기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돼서 해야 된다.
75. 지금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하는 때다. 고로 <자기>가
실천함으로 성장하고, 완전해지고, 자기 할 일을 다 해서 왕 살
아 먹어야 된다.
76. <왕 같은 제사장>이란 ‘개성의 왕’이다. 모두 개성대로 ‘왕
들’이다.
77.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고 하는 때가 왔으니, 이때는 무조건 행
해야 된다.
78. 꼭 자기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완전하게 행하면, 그때는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이다.

79. <온전하게 행하는 사람>에게는 <온전하게 행하는 것>을 자꾸 보여 준다. 그런데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지 않으면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80. <자기>가 깨끗하지 못하면, <깨끗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지 못한다.
81. 온전하지 못한 자들끼리, 깨끗하지 못한 자들끼리 계속 뭉치면서 계속 일을 저지르고, 섭리사를 지적한다. 고로 그들은 ‘사악한 자, 주를 거스르는 자’가 된다.
82. <사악한 자, 주를 거스르는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83. <사악>이라는 말은 ‘사탄이 개입함으로 인해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고로 <사악한 자>란, ‘사탄의 주관을 받는 자, 사망권의 악한 자’를 뜻한다. 이들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인다.
84. <섭리사를 나간 자들>은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어떠하다. 거슬린다.” 하면서 자꾸 주의 행하심을 ‘거슬리는 것’으로 봤다. 본인이 악하니, 자꾸 그렇게 본 것이다. <자기 생각, 자기 주관>대로 보는 것이다.
85. <주>께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그들의 교만한 눈을 낮추신다.

86. 잠언 20장 7절을 보면, “온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하면 그런 자는 ‘의인’이다.
87.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의인>에게는 복을 주고, 그 후손에게도 ‘복’을 준다.” 하셨다.
88.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다. <시대 신부들>이 온전해야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다.
89. <하나님>은 ‘신랑’ 이시고, <우리들>은 ‘신부’ 다. 고로 <온전하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들>도 온전해야 된다.
90. <자기>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만들어지지 않은 대로만 본다.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면, ‘완전한 것’만 본다. 고로 성공한다.
91. 빨리 자기를 만들어라. 말씀을 선포하면, 그때부터 바로 ‘실천’이다.
92.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다. 그의 후손에게도 복이 있다.
93. 하나님은 온전하신데, 너희도 온전해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94. <완전하게 행하는 자>와 <완전하게 행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지능 차이이다.
95. <지능 차이>는 ‘생각 차이’ 다.
96. <생각>이 강하면, ‘강한 실천력’ 을 가지고 행한다.
97. <생각>이 약하고 흐리멍덩하면, 뭘 해도 하다가 만다. 이런 자들은 ‘지능이 낮은 자’ 다.
98. 전체를 보면, 이 ‘생각의 지능이 높은 사람’ 이 80~90% 된다. 그런데 일부 ‘지능이 낮은 자’ 가 있다. 이들은 자기가 책임 분담을 못 한 것이다. <자기 생각과 행실>에 따라 지능이 떨어진 것이다.
99. <자기 책임 분담>이다.
100. 생각이 약하니, 가다가 ‘뇌의 시동’ 이 꺼져버린다. 고로 100% 못 하는 것들이 있다. 이는 <뇌>에 그런 식으로 습관이 들고, <체질>에 습관이 들어서 그러하다.
101. <뇌>도 ‘습관 들이기’ 에 달렸다.
102. <타락>하면, 계속 ‘타락하는 길’ 만 생기고 <타락>을 안 하겠다고 하면, ‘타락을 안 하는 길’ 이 자꾸 생긴다.

103. <자기>가 ‘책임 분담’을 다 함으로 100% 완전하게 해야 된다.
104. 하나님은 <완전한 자>는 ‘주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다.
105. <완전하게 하거나 못 하는 것>은 ‘조금의 차이’다.
106. <생각>을 ‘조금’ 더 하면 됐는데, <생각>을 ‘조금’ 더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것이 많다.
107. <조금 더 행하는 것>은 <더 완전한 것>을 찾기 위함이다.
108.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더 완전한 것’을 찾으신다.
109. <완전히 행한 자>는 ‘의인’이다. 하나님은 ‘완전히 행한 자, 의인’을 찾으신다.
110. (하나님) 너희에게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줬노라. 곧, ‘말씀’이 아니냐. <생각>이 다른 데로 가면, ‘아니야!’ 하고 돌이켜 다시 가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난다.
111. (하나님) 완전하게 해 버릇해라. <완전하게 하는 습관과 버릇>을 들여라. 완전하지 못하면, ‘생명의 수한’대로 제대로 살지 못한다. 운전할 때도 완전히, 기도할 때도 완전히 해야 된다.

112. (하나님) 너희에게서 ‘흑암’을 완전히 없애고, 섭리사 안에서 ‘흑암’을 완전히 없애라.
113.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행함>으로 낙을 누려야 된다.
114. <온전히 행할 때, 완전히 행할 때> 기쁨의 성취감, 완성의 성취감이 있다. - 이는 최고의 성취감이다.
115. <회개>도 완전하게 해서 호리라도 남김이 없어야 된다.
116. 회개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고로 천국 문이 열리지 않는다.
117. 완전히 회개해야 된다.
118. 형제들에게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에게 가서 진실로 잘못을 밋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사탄이 그 죄를 잡고 힐문하고, 권세를 부린다.
119. <자기 죄>에 대해서는 무섭게 검토하고 회개해야 된다. <자기 죄, 자기 모순>을 꼭 봐야 된다.
120. <죄>를 지으면 ‘그릇에 구멍이 난 것’과 같다. 고로 아무리 그릇에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다.

121.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행하면, 그 죄로 인해 다른 온전한 것도 헛되게 된다.
122. 회개하여 자기를 완전히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123. <기도>도 완전하게 해야 된다.
124. <응답 받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는 응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된다.
125. <간절한 기도>는 그때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해야 된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만이 얻는다.
126. 항상 성령님을 부르고, 대화하고, 물어봐야 된다.
127. 섭리사는 ‘자기’ 뿐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것>까지 책임지고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특히 사랑하는 신부들의 기도를 듣고 해 주신다.
128. 모두 완전하게 기도해야 된다.
129. <테니스를 칠 때>도 완전하게 행해야 볼이 바깥으로 나가지 않고 안으로 정확하게 들어간다. <축구를 할 때>도 볼을 완전하게 차지 않으면, 볼이 들어가지 않는다. 완전히 차야 100% 볼이 들어간다. 이같이 <운동 경기를 할 때> 완전하게 해야 이기듯이 <신앙>도 완전하게 행해야 사탄에게 안 지고 이길

수 있다.

130. <말씀을 들을 때>또 <생각>을 ‘정확한 방향’으로 완전하게 맞춰야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간다. <생각>이 조금만 돌아가도 말씀이 바깥으로 다 나간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완전할 때’만 잘된다. 고로 완전하게 하려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131. <외적>으로도 깨끗하게 단장해야 되고, <내적>으로도 흠 없이 깨끗해야 된다.
132. <정신>, <생각>도, <행실>도 깨끗하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깨끗한 말’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는 ‘사망의 땅, 흑암’을 보게 된다.
133. 형제들끼리 지적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적하면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 앞에 외람된 행위, 심판의 행위들이다. 고로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자를 심판하신다.
134.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보면,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한 것’을 계속해서 심판하셨다. <소돔 땅>도 온전하지 못하므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노아 때>도 하나님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며 사니, 온전치 못한 고로 홍수 심판을 하셨다. <아담과 하와>도 충분히 온전할 수 있었으나, 결국 타락하여 온전치 못한 고로 하나님은 심판하셨다.

135. 누구든지 온전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조금만 더 하면 된다.
136. 가령 100미터를 가는데, 98미터를 가나, 100미터를 가나 그 노력은 같다는 것이다.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 습관이 들고, 버릇이 들어서 그러하다.
137. 정신만 차리면, 누구든지 충분히 할 수 있다. 고로 조금만 더 하라는 것이다.
138. <기드온 300명 용사>같이 완전히 행하는 자들끼리 자꾸 뭉쳐서 행해야 된다.
139. <완전한 자들>이 뭉쳐서 자꾸 해야 완전히 행해지게 된다. 십리사 안에서 항상 하나로 뭉쳐서 해야 된다.
140. 자기가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야 된다.
141. 형제들끼리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긍휼을 베풀며 행해 나가야 된다.
142.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본인이 온전하지 못하면, 온전한 것을 보지 못하고, 온전하게 사용하기도 못한다.

143. <하나님의 6000년 구원역사>를 봐도, 하나님은 항상 온전하게 행해 오셨다. 그런데 <인간>이 온전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그렇게도 고통을 겪으며 왔다.
144. 하나님은 ‘절대 완전한 존재자’ 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행하신다. 고로 하나님은 ‘온전한 자’ 를 통해 역사를 펴 나가신다.
145. <노아>가 합당하게 온전히 행하니, 하나님은 노아에게 나타나셨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타나서 늘 말씀하셨다.
146. <모세>도 ‘온전한 자’ 였다. 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를 보내셨으나,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온전치 못하게 대했다. 본인들이 온전하지 못하니, 모세까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하며 자꾸 거스르고 불신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까지 막았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신광야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죽었다. 그 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보내시어 <그 앞에 온전하게 행한 자들, 2세대>을 데리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셨다.
147. 하나님은 ‘자신이 보낸 자, 온전한 자’ 를 통해 행하시니, 그를 100% 완전하게 믿어야 된다.
148. <믿음의 조건, 실천의 조건>은 기본이다. 믿었으면, 행해야 된

다.

- 149. <믿기>, <행하기> - 이 두 가지의 기본 터전 위에 ‘완전히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 150. 100% 온전하게 행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행하지 못한 롯의 아내>같이 조금 기둥이 된다.
- 151.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통해 역사를 펴신다. <온전한 자>를 통해 ‘시대 말씀’을 전하신다.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안 하면, 그것은 자기가 책임 분담을 못 한 것이다.
- 152. <휴거>도 이미 다 가르쳐 줬으니, 저마다 ‘자기 책임 분담’을 해야 된다.
- 153. 자기 책임 분담을 했으면, 휴거가 된 것이다. 그러나 자기 책임 분담을 못 했으면, 휴거가 안 된 것이다.
- 154. <완전한 시대 말씀>을 가지고 ‘천 년 역사’를 펴 나간다.
- 155. 온전하게 행하지 못하면, 시대에서 자꾸 벗어나게 된다.
- 156. 완전히 행해야 ‘승리하는 것’이요, ‘이기는 것’이다.
- 157.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온전하기를 바라신다.